

화성에 1억달러 투자하는 ASM

# 美·싱가포르·韓 3대 기지로 운영 PEALD 사업 연구개발·생산 확대

(플라즈마원자증착)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  
연구개발·제조 공간 최소 2배 ↑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약속

네덜란드 ASM이 국내 거점을 대폭 확대한다. 미래 반도체 필수 기술인 플라즈마원자증착(PEALD)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 한국을 핵심 거점으로 삼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포부다.

ASM은 23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투자 계획과 전략을 발표했다.

ASM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다. 매출 기준으로 전세계 7위. 증착 분야에서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9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 1995년 국내 지사인 에이에스엠케이를 설립, 2005년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인 지니테크를 인수하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왔다.

ASM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1억달러 투자 MOU를 맺으며 국내 투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4일 경기도 화성에서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식을 진행하고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공간을 2배, 제조 공간을 3배 이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수백명 규모 채용도 진행할 계획이다.

벤자민 로 ASM CEO는 한국이 글로벌 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전략 출발점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시설을 확장하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벤자민 로(Benjamin Loh) ASM CEO.

는 것뿐 아니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ASM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ASM은 한국을 플라즈마원자증착(PEALD) 사업 거점으로 삼고 연구개발과 함께 장비 생산까지 맡기고 있다. 지니테크를 인수한 후 국내 R&D 팀이 기술을 개발해 ALD 쿼드 챔버 모듈 아키텍처와 깎 필 기술 등 다양한 장비에 활용하고 있다.

벤자민 CEO는 앞으로도 한국을 PEALD 거점으로 삼고 연구 개발과 생산까지 전담시킬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ASM 전략상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를 주요 3대 기지로 운영하면서 각각 기술과 생산을 특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 장비 공급을 요청받기는 했지만,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아니라며 한국에서 만드는 장비는 전세계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LD기술이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확신

하기도 했다.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황, 이를 위해서는 ALD 증착 장비가 필수라는 이유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는 증착 공정에 ALD 비중을 대폭 늘리는 중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 단위로 증착을 해 정확하고 균일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수로 자리잡은 고유전율 메탈게이트(HKMG)를 적용하는데도 꼭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진행할 수 있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도 있다.

ASM은 ALD 기술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다. 지난 20년 이상 연구 개발과 함께 많은 경험을 쌓은 만큼 고객들도 ASM을 신뢰하고 있다며, 국내외 경쟁 업체들도 쉽게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ASM은 한국 투자 확대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물 사용량 감축과 재활용 소재 확대 등이다. 국내 투자도 추가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자민 로 ASM CEO는 “ASM은 1989년 한국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의 잠재력, 추진력과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미 그 때부터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감했다”며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왼쪽부터)카카오페이 신호철 결제그룹장, 카카오모빌리티 김재현 카오너사업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조한규 대외협력실장, 카카오 신민균 전략기획그룹장,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기술책임자 존 쿡, 최고책임자 알하산 알다바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카카오, IT 기술로 사우디 관광 활성화

모바일 인프라 구축 협력 논의 진행

있다.

카카오 공동체의 IT 기술력과 K-콘텐츠가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한다.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현황을 비롯해 테크핀, 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분야의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전반의 IT 인프라를 고도화하는데 협력한다.

카카오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오피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관계자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인프라 구축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문화, 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계획을 골자로 한 '사우디 비전 2030'을 제시하며, 전략적 협력 국가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관광 산업에 있어 '심리스 트래블(Seamless Travel)'을 모토로 관광객들의 편의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IT 인프라 기반의 관광 환경 고도화를 추진하고 K-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교류를 이어가고자 카카오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오고

양측은 이날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결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사우디 관광객들의 결제 시스템 구축, 카카오톡을 활용한 사우디 내 카해일링(차량 호출) 및 차량 관제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카카오톡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및 비즈니스 지원 등 시너지를 모색했다.

특히, 인구 절반이 30대 이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K-팝(POP)을 비롯한 K-콘텐츠에 대한 열기가 높은 만큼, 카카오펀터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지식재산권(IP) 사업과 연계해 양국 간 문화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카카오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전반의 IT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카카오 공동체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사우디 국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현지 관광 비즈니스 활성화와 문화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 WTO 사무총장, '네이버 1784' 방문

韓 인터넷 플랫폼 첫 방문

무역서 디지털 기술 역할 강조

네이버의 첨단 기술이 대거 집약된 미래형 공간, 제2사옥 1784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3일 응고지 오킨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방한 일정 가운데, 네이버 1784를 방문했다. 응고지 사무총장은 WTO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이자, 첫 여성 사무총장이다. WTO 사무총장의 방한은 지난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으로, WTO 사무총장이 한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직접 방문한 것 역시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응고지 사무총장 일행은 1784를 방문해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인 네이버가 보유한 AI(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트윈 등의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무역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는 네이버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와 네이버랩스 석상욱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응고지 오킨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1784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들을 직접 체험한 뒤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며, 디지털 전환은 업계와 각국 정부에 도전과 기회를 불러올 것”이라며 “오늘 한국의 젊은



23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한 응고지 오킨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네이버

디지털 기업인들과의 토론을 통해 한국이 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서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WTO도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해 국제 협력과 국내 정책을 마련에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네이버의 제2사옥 1784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첨단기술과 공간의 융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테크 컨버전스 공간이기도 하다. AI·로봇·디지털트윈·자율주행·클라우드·5G 등 수많은 기술들이 사옥 공간 자체와 융합돼, 네이버 임직원들의 업무를 돕는 동시에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마제드 알 호가일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일행 등이 1784에 직접 방문한 뒤, 네이버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MOU까지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채윤정 기자

## LG U+, 전문가와 사이버 보안 내실 다져

‘정보보호자문위원회’ 발족

기술·관리적 정책 자문 역할 수행  
첫 회의 열고 분안 문제·현안 점검

LG유플러스가 최근 개인 정보 유출 및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큰 소비자 피해를 겪은 이후, 사이버 보안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23일 사이버 보안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보안 혁신 활동’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용산본사에서 황현식 CEO가 자리한 가운데 법조계, 산업계, 연구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의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총 7명으로 ▲이규주 김연장 법률사무소 정보보호 연구소장 및 고문(자문위 총괄 위원장) ▲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앤 변호사

▲김익균 ETRI 사이버보안연구본부 책임 연구원 ▲김휘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상민 연암공대 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전무) ▲최동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다. (위원장 외 가나다 순)

위원들은 위촉식에서 향후 정기적 회의를 갖고, 회사의 기술적·관리적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어진 본 회의에서는 최근 일련의 보안 문제와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시정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과제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투자·인력·의존·연·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실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 회의의 말미에는 AI 등 선진 기술을 정보보호에 활용하는 방안, 시스템·솔루션·데이터 등 IT 중요 자산 관리 방향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국내외 사례 연구와 최신 동향을 살펴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문위 총괄을 맡은 이규주 위원장

은 “기업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특히 통신 업계는 다양한 데이터가 모이는 곳만큼 정보보호의 양적, 질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행 방안들을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김연장 법률사무소 정보보호연구소장 및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한국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또 2014년에서 2017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012년에서 2014년까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회사 정보보호 방향성 자문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현식 LG유플러스 CEO(사장)는 “회사 보안 체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외부의 다양한 시각까지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했다”며 “고객들에게 더 깊이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자문위원들과 함께 보안 검증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